

보도시점 2025. 8. 28.(목) 12:00 배포 2025. 8. 28.(목) 10:00

‘25년 2분기 가계소득 +2.1% 증가 1~5분위 가구 모두 소득 증가

- 5분기 연속 근로·사업·이전 소득 모두 증가
- 4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 상회하며 흑자액 +3.3% 증가

‘25.2/4분기 가계소득은 임금상승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근로소득(+1.5%)·사업소득(+0.2%)·이전소득(+5.1%)이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이 +2.1% 증가^{8분기연속}하였다.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보합을 나타냈다.

- 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3.5 (3/4)4.4 (4/4)3.8 ('25.1/4)4.5 (2/4)2.1
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0.8 (3/4)2.3 (4/4)2.2 ('25.1/4)2.3 (2/4)0.0
- *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19.4<+1.5%> (사업)94.1<+0.2%> (이전)77.3<+5.1%>

1~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, 1분위(+3.1%)의 경우 근로소득(△7.3%)은 감소하였으나 사업소득(+10.2%) 및 이전소득(+5.7%)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하며 전체 가계소득 증가율(+2.1%)을 상회하였다.

- 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2.1 (1분위)3.1 (2)2.0 (3)2.3 (4)4.0 (5)0.9
- * 1분위소득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근로)△7.3 (사업)10.2 (이전)5.7 (재산)△30.8
- * 5분위소득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근로)△1.1 (사업)4.0 (이전)3.9 (재산)13.9

가계 소비지출은 음식·숙박, 보건,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전체 +0.8% 증가하였다.(실질소비지출은 △1.2% 감소) 처분가능소득은 +1.5% 증가^{8분기연속}하였고, 흑자액은 +3.3% 증가^{5분기연속}하였다.

- *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 /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
소득 5분위배율은 5.45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(+0.09배p)하였다. 다만, 분기별 가구소득은 계절성, 변동성 등으로 가계동향의 5분위 배율을 통해 소득 분배를 분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,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.

- 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(배): ('22.2/4)5.60 ('23.2/4)5.34 ('24.2/4)5.36 ('25.2/4)5.45

정부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2차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, AI 대전환 · 초혁신경제 구현 등 「새정부 경제성장전략」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※ 상세한 분석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	책임자	과 장	이진민 (044-215-8570)
		담당자	사무관	이 찬 (lchan644@korea.kr)



1

주요 동향

전체 가구소득

□ (총소득)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.5만원, 전년동기대비 +2.1% 증가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3.5 (3/4)4.4 (4/4)3.8 ('25.1/4)4.5 **(2/4)2.1**

○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보합

*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0.8 (3/4)2.3 (4/4)2.2 ('25.1/4)2.3 **(2/4)0.0**

** 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2.7 (3/4)2.1 (4/4)1.6 ('25.1/4)2.1 **(2/4)2.1**

□ (소득항목별) 근로소득 · 사업소득 · 이전소득 모두 증가

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19.4<+1.5%> (사업)94.1<+0.2%> (이전)77.3<+5.1%>

○ (근로소득) '25.2분기 임금근로자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

* 임금근로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4.2/4)25.9 (3/4)20.1 (4/4)7.3 ('25.1/4)20.6 (2/4)30.6

** 사업체임금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3.6 (3/4)3.4 (4/4)3.3 ('25.1/4)4.5 (4월)2.7 (5)2.5

○ (사업소득) 서비스업 생산 증가 등 영향으로 증가

*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(%): ('24.2/4)3.4 (3/4)2.2 (4/4)2.5 ('25.1/4)1.9 **(2/4p)2.5**

○ (이전소득) 사회안전망 확충* 등 영향으로 증가

* '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(4인가구 6.42%), 국민연금·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등

분위별 소득

□ 1~5분위 모든 분위에서 소득 증가

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2.1 (1분위)3.1 (2)2.0 (3)2.3 (4)4.0 (5)0.9

○ (1분위) 사업소득(+10.2%)·이전소득(+5.7%) 중심으로 총소득 증가, 근로소득은 감소(△7.3%)

* 1분위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3.7 (3/4)5.4 (4/4)3.0 ('25.1/4)△1.5 **(2/4)3.1**

↳ '25.2분기 원천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근로)△7.3 (사업)10.2 (이전)5.7 (재산)△30.8

○ (5분위) 사업소득(+ 4.0%) 중심으로 총소득 증가, 근로소득은 감소(△1.1%)

* 5분위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5.1 (3/4)6.5 (4/4)3.7 ('25.1/4)5.6 **(2/4)0.9**

↳ '25.2분기 원천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근로)△1.1 (사업)4.0 (이전)3.9 (재산)13.9

지출 · 가계수지

□ (비소비지출) 경상조세 등(+ 6.9%) 증가하며 비소비지출 증가(104만원, + 4.3%)

* 비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3.7 (3/4)0.5 (4/4)2.8 ('25.1/4)4.4 **(2/4)4.3**

* 비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경상조세)6.9 (사회보험)25.9 (이자)1.9

□ (소비지출) 보건(4.3%), 음식 · 숙박(3.3%), 식료품(1.8%) 등 증가하며 소비지출 증가(283.6만원, 0.8%)

* 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4.6 (3/4)3.5 (4/4)2.5 ('25.1/4)1.4 **(2/4)0.8**

* 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주거수도광열)1.8 (식료품)1.8 (교통)△5.7 (통신)△1.5

○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은 △1.2% 감소

* 실질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1.8 (3/4)1.4 (4/4)0.9 ('25.1/4)△0.7 **(2/4)△1.2**

□ (가계수지) 처분가능소득 증가(402.4만원, 1.5%), 흑자액 증가(118.8만원, + 3.3%)

*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 /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
** 처분가능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3.5 (3/4)5.5 (4/4)4.0 ('25.1/4)4.5 **(2/4)1.5**

흑자액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0.9 (3/4)10.2 (4/4)7.8 ('25.1/4)12.3 **(2/4)3.3**

소득분배

□ (5분위배율)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.45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(+ 0.09배p)

※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= (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공적이전지출) / $\sqrt{\text{가구원수}}$

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(배) : ('22.2/4)5.60 ('23.2/4)5.34 ('24.2/4)5.36 **(25.2/4)5.45**

○ 다만,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

□ [평가] 총소득 8분기 연속 증가, 1~5분위 모두 소득 증가

- '25.2분기 가계 총소득은 8분기 연속 증가, 실질소득은 보합
 - 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3.5 (3/4)4.4 (4/4)3.8 ('25.1/4)4.5 **(2/4)2.1**
 - *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2/4)0.8 (3/4)2.3 (4/4)2.2 ('25.1/4)2.3 **(2/4)0.0**
- 1분위 소득 증가 전환, 2~5분위 소득 증가 지속
 - 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2.1 (1분위)3.1 (2)2.0 (3)2.3 (4)4.0 (5)0.9
 - * 1분위 소득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근로)△7.3 (사업)10.2 (이전)5.7 (재산)△30.8
-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전년동기대비 상승
 - 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= (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공적이전지출) / $\sqrt{\text{가구원수}}$
 - ↳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(배) : ('22.2/4)5.60 ('23.2/4)5.34 ('24.2/4)5.36 **(25.2/4)5.45**

※ 분기별 가구소득은 계절성, 변동성 등으로 가계동향의 5분위 배율을 통해 소득 분배를 분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
→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

□ [대응방향] 2차 추경 신속 집행 + AI 대전환 · 초혁신경제 구현 등 「새정부 경제성장전략」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

-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위한 2차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(9월말 85% 이상)
 - * 민생회복 소비쿠폰(7월~),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(8월~), 취약차주 채무조정 추진(9월~) 등
- AI 대전환 ·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「새정부 경제성장전략」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
-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
 - AI 특화교육 등 청년 취업역량 제고, 구직·재취업 지원 강화*
 - * 청년층 구직촉진수당 확대 검토 및 중고령층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확대
 - '26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*(+6.51%, 4인), 생계급여 제도개선**을 통해 기초생보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
 - * 기준중위소득 증가율(4인가구, %): '21)2.68, '22)5.02, '23)5.47, '24)6.09, '25)6.42, '26)**6.51**
 - **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(29→34세 이하) 등 수급자 소득 인정 기준 완화